

제5강

죽음의 가치와 안락사



수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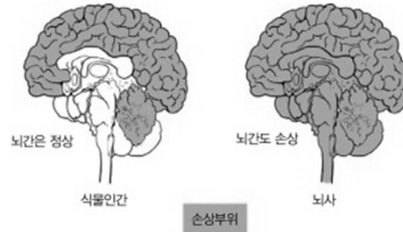
- ❖ 죽음에 대한 윤리적 논의
- ❖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죽음에 대한 윤리적 논의

❖ 뇌사란 무엇인가?

-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
-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뇌의 모든 기능은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상태이며, 2~3일에서 길어야 2주일이면 심장이 멎는다



죽음에 대한 윤리적 논의

❖ 식물인간이란 무엇인가?

- 뇌(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모든 인지 기능이 소실된 경우 따라서 환자는 외부환경과 자극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에 따른 반응도 할 수 없다.
- 뇌간이 손상 받지 않았기에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호흡, 심장, 위장운동) 이 남아있다.
- 영양공급에 의존 1-2년 그 상태를 지속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죽음에 대한 윤리적 논의

❖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들

▪ 뇌사와 죽음을 동일시 하지않는 이유:

- 뇌는 인간의 매우 중요한 활동인 의식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뇌가 죽으면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
- 그러나 뇌가 가진 통합기능이 상실되어 있을지라도 개개의 장기나 기관이 다소나마 살아 있는 한 아직 살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 인식이다.



죽음에 대한 윤리적 논의

❖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들

▪ 뇌사와 죽음을 동일시 하는 이유:

- 인간의 생명이란 신체기능의 유지가 다가 아니다.
- 인간의 생명은 인지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기계장치를 통해서 호흡, 대사, 심장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 뇌사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내지는 편의적으로 나누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Euthanasia)

- 평화로운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Euthanatos에서 유래
- 한 생명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에 의해 그 생명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의 분류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의사(표현) 여부에 따른 구분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
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 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환자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안락사
- 회복 불가능한 병이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와중에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밝혀 놓을 수도 있음.
- 오늘날 서구에서 허용을 주장하는 안락사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 비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
- 안락사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는 경우
(예: 신생아와 중증의 정신적 장애인)
- 이전에 이해능력이 있었으나 현재 상실한 경우 (예: 노인성 치매 환자)
- 이해능력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예: 혼수상태)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 반자의적 안락사(타의적 안락사, 강제적 안락사)

-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시행되는 안락사
 - 환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생명유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유발하는 진통제의 양을 과도하게 주사하는 경우

※ 이 안락사는 이타적 살인이라기보다는 모살(謀殺)에 가깝다.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

-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의 안락사
- 환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안락사, 약물주사 등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 생명체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형태의 안락사
-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보다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
- 소극적 안락사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환자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퇴원시킴.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뒤를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가 이를 허용.
- 미국도 1994년 오레건주를 시작으로 5개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안락사에 대한 논쟁

▪ 찬성

- 환자의 죽을 권리 인정
-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
- 말기 환자의 치료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 제거

▪ 반대

-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인간에 대한 경시
- 미끄러운 언덕길 논리
- 말기환자의 의사의 불분명성/오진가능성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잠수종과 나비(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줄리앙 슈나벨, 2008)



씨인사이드(The Sea Inside,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2004)





토의: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견나누기

❖ 토의 주제 :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및 찬반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학우들과 나누어보세요.

※ 찬성: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옹호되는가?

※ 반대: 안락사는 정당화 될 수 없는가?

- 안락사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근거
- 의무론적 입장/ 공리주의적 입장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안락사에 대한 의무론적 관점(자의적 안락사)

- 의무론적 관점에서 안락사로서의 죽음은 살인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안락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판단에 강하게 의존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이 죽임을 당하는 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거에서 그릇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 **자의적 안락사는 의무론의 입장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해 옹호될 수 있다.**
환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안락사는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별 어려움 없이 정당화할 수 있다.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람과 침해하는 사람이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안락사에 관한 네덜란드의 지침

- 현재 네덜란드의 경우, 의사는 다음의 지침을 따르는 한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 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환자의 요구는 반드시 반복적이고 명확하며 강요되지 않아야 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
 - ③ 의사는 반드시 다른 의사에게 제2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④ 환자는 반드시 호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네덜란드의 지침은 자의에 의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안락사에 대한 의무론적 입장

- 의무론의 입장에서 비자의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로 본다.
- 비자의적 안락사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 고려된다. 즉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이전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혼수상태의 환자 등의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을 죽이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생명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그른 일이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안락사에 관한 공리주의적 입장

-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안락사의 정당성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락사를 통한 당사자의 이익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뿐인 의미 없는 연명이 주는 불이익을 없애는 것일 것이다.
- 또한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떤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결정법

58세의 남자(보라매병원, 1997년)

-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119 구급차에 실려옴. 의료진은 긴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고 환자의 의식도 회복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다음 날 오후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 (긴급한 상황이라 부인의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
- 귀가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가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에 서명
- 인공호흡기를 제거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
⇒ 퇴원허용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적용

김○○ 할머니(세브란스병원, 2009년)

-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 요청 하였으나, 병원 측 거부로 소송제기
- 법원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
-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최종 판결)**
-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할머니 스스로 호흡하며 생존, 입원 201일 후 2010년에 사망
⇒ 연명의료결정법(약칭) 적용계기,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원이 인정한 국내 첫 사례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 ‘존엄사법’)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2016년 2월 제정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말기 및 임종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医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



연명의료결정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
- 작성시기는 제한 없으며(건강할 때부터 가능), 국가등록기관에서 작성 가능
-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19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당당 의사나 전문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事前延命醫療意向書)

나(이)는)의 진강이 아래 1.의 ‘상태’에 이르러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되면 2.의 ‘연명의료’를 거절하겠으니, 담당 의뢰진과 가족은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기록한 나(자)의 뜻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이나 철회에 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1. 상태
희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최후에 임박한 상태
2. (거절하는)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 위의 경우에도 나는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 및 평안과 청결을 위한 케어 조치는 원합니다.

지정대리인 : 내가 나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아래 지정대리인이 결정을 하도록 위임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대리인 (1)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대리인 (2)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

지정대리인 (1)	성명	관계	연락처
지정대리인 (2)	성명	관계	연락처

년 월 일

작성자·주소 성명 인·자·번호

생년월일 진화 보관장소

중 안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진화 관계

더하고 싶은 이야기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장례에 관한 당부 등 제한 없이 기재 가능)

* 사전 지명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402호 www.hope9888.com 02) 350-0987
* 의향서 작성확인카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엄사 vs 연명의료중단 vs 안락사

❖ 존엄사란?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

❖ 연명의료중단(연명의료결정법)이란?

-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

❖ 안락사란?

-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



안락사에 대한 대안

❖ 호스피스제도

- 병원에서조차 의술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시한부 환자들)이 평온하게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잠깐~! 생각 퍼즐 만들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라면 무엇을 할까?



잠깐~! 생각 퍼즐 만들기

❖ **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최철주, 2008)**

-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할 것인가?'

